

스페셜



로버트 Terry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회장 구글에서 ‘코리아 아트’로 검색하면 맨 위에 ‘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(www.koreanartsociety.org)’라는 단체의 웹사이트가 뜬다. 한국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비영리 단체는 디트로이트 출신 로버트 Terry(51)가 2008년 설립한 단체다. 회원만 3000여 명. 한인과 타민족 비율은 반반 정도. 이 회원들에게 한국 미술과 관련된 정기 영어 간행물을 발행하고, 회원들이 함께 한국 미술품을 찾아 미국 전역을 투어한다.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Terry는 래퍼들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면서도 한국 미술품 콜렉터이자 딜러로도 활동한다. 그를 만나봤다. **이주사 기자 jsrlee@koreadaily.com**

“한국 미술이 내 마음에 구멍을 뚫었다”

-언제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지.
“지난 18년 동안 계속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. 1년에 최소 한 번, 많게는 서너 번도 간다. 제일 처음 한국에 갔을 때, 먼저 제주도를 방문했다. 물론 공항을 들리긴 했지만. 하하.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다. 개인적으로 도시로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보다는 시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. 도시는 서울이나 도쿄, 뉴욕, 거의 비슷하지 않나. 그래서 한국의 사람과 문화를 보려고 제주도로 갔다. 물론 관광지긴 하지만 사람 손이 덜 닿았고 자연과 가까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. 그러곤 서울로 와서 친구들과 당시 경복궁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게 됐다. 아직까지도 그 날이 생생하다.”
-그날 한국 미술과 사랑에 빠진 건가.
“그렇다. 한국 미술과 사랑에 빠진 그날, 그 순간이 눈에 선하다. 시대 순으로 전시가 진행됐는데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미술만의 매력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고, 특히 고려청자, 상감청자 등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색깔에 반했다. 수천 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, 이런 색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라웠다. 하지만 진짜 사랑에 빠진 순간은 조선시대 전시관으로 갔을 때다. 그때였다. 분청사기를 본 그 순간 한국 문화와 미술에 빠졌다.”
-분청사기에 빠졌더니.
“가장 놀라웠던 것은, 청자처럼 세밀하고 우아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

어 내던 민족이 거칠고 와일드한 분청사기도 만들었다는 점이다.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문화권을 본 적이 없어서 더 놀랐다. 방금 전 청자가 있던 전시관에서 나와 분청을 봤는데, 이 두 가지를 한 문화권에서 만들어내다니...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. 음악으로 치면 클래식과 블루스·재즈 음악이 공존하는

2008년 설립...매년 한국행 고려청자·분청사기에 반해

“사이를 1000년 뒤에도 알까 클래식 한 문화의 힘 확산”

같은 일 하는 한인단체들 경쟁 보다 서로 협력하기를

것이다. 이쯤에서 함께 박물관에 왔던 친구들은 먼저 돌려보냈다. 하하. 그날 이후 한국 미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했다. 한국 미술 콜렉터이자 일본 미술 딜러인 한 친구가 있는데,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. “한국 미술이 내 마음을 찔러 구멍을 뚫었다.(It stabbed a hole in my

heart)” 내 마음이 딱 그랬다. 더 많은 책과 미술품을 모으고 한국 미술 관련 행사에 참석해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한다.”

지금까지도 한국 미술을 향한 그의 사랑은 이어진다. 그는 한국 미술과 관련된 책은 눈에 닿는 대로 모두 구매한다. 참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맨해튼 헬시 오피스에는 Terry가 그동안 모은 한국 고서 등 미술 관련 서적만 2000여 권이 소장돼 있다. 물론 여기 있는 책은 모두 한 번 이상 읽은 것들이다. 큐레이터, 콜렉터들이 방문해 종종 책을 빌려가기도 한다. 1958년 뉴욕에서 처음 있었던 한국 미술 전시 브로셔를 비롯해 이화여대에서 발행한 서적 등 종류도 다양하다.

-직접 책을 쓰진 않는지.
“최근 미술 교과서에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챕터(chapter)를 썼다. 맥그로힐(McGraw Hill)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미술 교과서다. 또 우리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에도 종종 글을 쓴다. 내가 알기론 영어로 된 한국 미술 관련 간행물은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유일하다. 물론 무료다.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로는 전혀 수익을 내지 않는다.”
-한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들었다.
“일래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를 알지 못해 한국을 방문해도 손짓 발짓을 하며 의사소통하곤 했다.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얼마 전이다. 배우면 배우수록 세종대왕은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. 곧 한국어 능력시험(TOPIK)도 칠 예정이다.”
-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설립 계기는.
“한국 미술에 대한 정보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. 한국 미술과 강한 첫 만남 이후 혼자 계속 공부를 해 왔는데, 영어로 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다. (한국 미술이) 굉장히 비밀처럼 남아 있는 인상이었다.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. 정보가 필요한 것을 발견해 2008년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를 설립했다. 우리 멤버 중 상당수는 재패니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. 보통 아시아 미술 학자들인데,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비롯해 찾을 수 없었던 정보를 많이 찾게 된다고 말해준다.”
-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 더 이야



헬시 사무실에서 만난 로버트 Terry. 그의 사무실에는 한국 미술품과 한국 미술 관련 서적들이 넘쳐난다.

기해 달라.
“물론 최근에는 사이를 필두로 K-POPI 인기다. 사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다. 하지만 100년 후에 과연 사람들이 사이를 알까? 반면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지나도 김홍도라는 이름은 알려 전해져 올 것이다. 나도 팝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, 정말 좋아하지만 클래식 한 문화가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. 결국 대중문화가 한국 미술과 문화를 알리는 대사 역할로 정말 훌륭하지만, 한국의 미술을 제대로 알리려는 움직임도 그 뒤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”
-어떤 방법으로 한국 미술을 알려야 할지.
“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미술을 알리기 위해 뭉치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. 가만히 보면 같은 미션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인데, 다 따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. 함께 뭉치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

있을텐데 그것이 아쉽다. 한국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부족한 게 아쉽다. 우리 웹사이트의 경우 구글에서 ‘코리아 아트’로 검색하면 맨 위에 등장할 정도로 많이 노출된다. 그런데 한국 미술 관련 단체들과 함께 링크가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, 오히려 재패니즈소사이어티와 링크를 공유한다. 다른 한국 커뮤니티 웹사이트와 왜 연결되지 않는 것인지... 최근에 아트게이트갤러리를 비롯해 헬시 한국 갤러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매년 하던 코리아아트쇼도 안 한다. 딜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매 문제였던 것이라고 한다. 한국 정부에서 수백만 달러 예산을 쓰긴 하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질 않나. 무엇보다 작가들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뉴욕에 와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.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는 건 아니다. 난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다. (웃음) 더욱 뭉치고 힘을 모아 행사를 열고, 네트워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.”

SUNOO | 201-363-1101

1년 \$3,000 ⇨ 1명 미팅시 \$50

“결혼정보회사 선우 - 후불제 전환”

www.couple.net 등록 > 서비스 이용

☎ 중앙일보 43-27 36th St., L.I.C., NY 11101

THE KOREA DAILY(USPS 682-890)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for \$20 per month by The Korea Central Daily News, Inc. 43-27 36th St., L.I.C., NY 11101. Periodical postage paid at Long Island City, N.Y. and additional mailing offices. 'POSTMASTER'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CENTRAL DAILY NEWS, INC., 43-27 36th St., L.I.C., NY 11101.

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넓은 세상, E세상알아가기 **컴교실 예약접수중!!**

에버그린 네티즌스 (Evergreen Netizens) 컴퓨터 교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

1. 실생활에 필요한 컴관련 주제: 컴퓨터 전공 교육자가 운영하는 커리큘럼
2. 학습시설 완비: 정원18명, 전원 설치된 랩탑으로 실습 (Windows 7)
3. 눈높이 학습방법: 수강생 능력에 따른 그룹화 및 반복 학습
4. 웹사이트 활용한 실습: EN Website를 통한 강화 실습 및 다양한 정보교류
5. 평생회원 동문활동: 정회원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건전한 친목 활동



클래스	요일	교실수업 / 실습	학습내용
컴퓨터필수반 (10주) (4/2-6/4)	화	9:30-11:30am. 강의/실습	컴퓨터를 처음 사용한다면 이메일과 인터넷을 약간 사용하지만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. 컴퓨터 작동이해, Windows 7/8 사용, 이메일 활용 및 인터넷 검색, 컴/IT기술이해, 디지털 사진관리, MS Office Word 기초문서 작성, 다양한 인터넷 고급활용을 배우고 실습. 컴퓨터 활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꼭 필요한 클래스
		11:30-12:20pm. 개별실습&질문	
디지털/멀티미디어 고급 활용반 (10주) (4/2-6/4)	화	1:00-3:00pm. 강의/실습	디카/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진전송/합성 등 다양한 편집, 사진시디 굿기, 음악 편집 및 시디 굿기, 영화만들기, 인터넷 웹활용(동영상 편집) 을 통한 동영상 활용 및 웹사이트 활용, 컴퓨터 필수반 이상 실력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한 동영상 멀티미디어반 시리즈
		3:00-3:50pm. 개별실습&질문	
MS Excel 고급활용반 (4/1-6/10)	월	6:30(7)-9pm	정원 10명. 사무실 상황에서 필요한 Excel기초에서 고급 활용까지 배움. 데이터입력, 워크시트편집, 수식과 다양한 함수활용, 차트및데이터관리 (프로젝트 실습)
무료 컴퓨터필수반 (4/7-6/9)	일	9-11am	정원 7명, 8주 수업, 수업내용은 컴퓨터 필수반 10주 내용과 동일함. 무료 컴필반에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 인터뷰 바랍니다. 선착순 정원이 차면 대기자 명단이 없습니다.

*각 클래스는 자율실습 및 반복학습을 숙제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함. 필수반은 컴퓨터 사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수강할 것을 권장함

- ▶등록전 전화예약 필수: (718)576-2020
- ▶등록 및 오리엔테이션: 3월 30일(토) 오전 11시
- ▶4월학기(10주): 4/2 ~ 6/10

- ▶대표강사: Paul K. Kim
- ▶교실: 209-34 39th Ave. #B Bayside, NY (Corporal Kennedy St. & 39th Ave.)
- ▶다음 학기: 7/2(5주), 8/27(10주), 11/18(5주)

Evergreen Netizens 에버그린 네티즌스

이 광고를 올리두세요.